

바로 아는 철기문화

박 문 기
농부, 사학자

먼 옛날 중국인들은 우리민족을 가리켜 동시(東尸), 동이(東夷), 군자국(君子國), 군자불사국(君子不死國) 등으로 일컬었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즉 동시(東尸)란 '동방 조상의 나라' 라는 뜻이요 '동이(東夷)'란 동방의 어진사람들 또는 큰 활을 지닌 사람들 이라는 뜻이며, 군자국이란 '도덕과 학문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 라는 뜻이고, 군자불사국이란 '그러한 군자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 나라' 라는 뜻을 말함이었다. 그래서 공자(孔子)도 '구이(九夷)의 땅에 살고 싶다' (子欲居九夷 : <論語 = 子罕篇>) 고 하였고 '뗏목이라도 타고 가고 싶다'(乘桴 浮于海) 고 하였다. 또한 중국인들은 우리 동이족이 5천년 전에 이미 갑옷 투구 예과(芮戈) 옹호창(雍狐槍) 등의 병장기를 만들어 썼다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의 역사를 간략히 기록했다는 「사략(史略)」이라는 책에 '치우(蚩尤)가 난리를 일으키니 그 사람이 구리쇠 이마요 능히 큰 안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蚩尤 作亂 其人 銅鍬額 能作大霧)고 전하고 있다.

여기서 치우씨란 동이의 군장을 이르는 말이고 안개란 당시 전쟁에 염초(焰硝)를 사용했다는 말이다.

운급(雲笈)의 「현원기(軒轅記)」에는 '치우가 비로소 갑옷과 투구를 만들어 썼는데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서 구리쇠 머리니 무쇠 이마니 했다' (蚩尤 始作鎧甲 兜鍪 時人 不識 以爲銅頭鍬額)고 기록되어 있다. 또 그 옛날 치우씨가 수금(水金)을 캐어 병장기를 만들었다는 곳은 바로 지금의 함경도 동백산(東白山)과 황해도 수룡산(修龍山)의 하천이었다' 고 고금의 중국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葛盧之山 發而 出水 金從之 蚩尤 受而制之 以爲劍鎧矛戟 : <管子> <山經考> 云 葛山之北 今咸鏡道東白山 當之 廬山之南 今黃海道修龍山 當之 衛挺生注》

이는 우리가 역사를 과장하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먼 옛날 중국의 사가들이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근대의 역사학자들이 그 지명을 정확히 고증한 것이다.

사실이 그러한데도 지금 우리의 역사 의식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철기문화를 겨우 2천 여년 전쯤으로 생각하고 위만(衛滿)이 고조선에 망명해 오기 전에는 이 땅에 철기문화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다들 이른 바 실증사학(實證史學)을 내세워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국의 예리한 철제무기를 가져 온 위만에게 무딘 청동기를 쓰던 왕조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사서나 우리의 사서 어디에도 위만이 망명해 올 당시 무기의 우열이

단 한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함에도 다들 그러한 억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개 그러한 연유는 지금 학계에서 인류문화의 발전사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 구분해 놓고 억측한 실증사학에 맞추어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릇 청동기란 구리, 주석, 아연 등을 녹여 만든 것으로써 고도의 합금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각각 열에 녹는 온도가 다르고 배합의 비율이 정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한번 파랗게 녹슬면 비록 땅에 묻혔을지라도 능히 수 천년동안 그 형태를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고대인이 그것으로써 묘장품(墓藏品)을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천년 전의 청동기도 가히 볼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철기는 땅에 묻혔다 하면 1백년을 능히 견디지 못하고 부식되어 버리는 것이다. 비록 켈 속에 잘 넣어 습기가 닿지 않게 했을지라도 수 천년 동안 그 형태를 보전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천년 전의 철기를 가히 볼 수가 없는 것이다.

대저 철이란 구리나 주석, 아연과는 달리 구하기가 쉽고 일정한 열에 녹기 때문에 단순한 공정으로써 기물을 제작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하천 표면에 밀려내려 온 쇳가루를 취해 기물을 만드는 일은 불을 사용할 줄 아는 원시인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로 미루어 필자는 감히 철기문화가 청동기문화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후기 신석기문화와 병행했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다.

후기 신석기문화란 빗살무늬, 줄무늬 등의 토기를 만들어 쓰던 시대를 말함인데 그러한 토기를 만들자면 물레의 중심쇠가 반드시 강한 철로써 만들어져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청동은 철에 비하여 유연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물레의 중심쇠로 만들어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 철을 상징하는 글자가 쇠를 뜻하는 金자와 우리 동이족을 뜻하는 夷자가 합해져 鍔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옥편을 펼쳐놓고 金부 6획에 鍔자를 찾아보면 ‘철의 옛글자’ 라는 뜻으로 ‘鐵古字’라 적혀 있고 金부 13획에 鐵자를 찾아보면 鍔자와 같다는 뜻으로 ‘鍔同’이라 적혀 있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 동이족이 맨처음 철기를 제작하여 썼다는 사실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한데도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서 쓰기에도 간편한 鍔자를 버리고 별스런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쓰기에도 복잡한 鐵자를 고집하여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증사학 운운하며 3천 여년의 역사를 떼어내 버리고 있는 것이다. 청동기는 지금도 제작하기가 심히 어려워 능히 그걸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인간문화재’란 칭호를 붙혀주고 있는데도 말이다.